

불안한 영광 주민들 '원안위' 항의 시위 벌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증기발생기 결함·사용후핵연료·이물질 등 문제 제기

환경단체 등 내달 2일 상경...정부 대책 마련 요구

한빛(영광)원전 인근 영광 지역민들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한수원의 원전 운영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아가 항의 시위까지 벌이기로 했다.

한빛원전 인근 지역민들은 다음달 2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찾아가 투명한 원전 운영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 시위에는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

보를 위한 공동행동과 영광원전수협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2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상경 집회는 한수원의 원전 운영에 따른 폐쇄성과 불안한 가동 방침에 따른 반발에서 비롯됐다는 게 해당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예를 들면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이상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하면, 사실상 포화 상태나 다름없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불신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빛 3호기의 경우 지난해 10월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됐고 쇳조각 등 이물질이 80여개 발견됐지만 한수원은 이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채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한수원 측은 더 나아가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안전성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로 원안위에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영광 주민들은 또 30년 가까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 안전성 확보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애초 원전 설계 당시 계획했던 규모보다 많은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따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관련 당국이 적절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빛원전은 지난 1986년 상업운영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에 임시로 보관중으로, 2019년 저장 공간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애초 계획된 규모를 초과해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수원측은 이와 관련, "발전소 인허가 및 재가동 여부는 원안위의 권한인 만큼 이를 규제기관의 판단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항사·미세먼지 가득 광주 도심

30일 광주지역은 미세먼지농도가 198㎍/3㎡까지 올라가는 등 열은 황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켜 산책에 나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작년 한해 광주시민 1800만명 지하철 탔다

지난해 광주지하철 전체 이용객은 1805만28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1800만5979명보다 4만6919명 늘어난 인원이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만9460명이다. 이중 금남로 4가역이 하루평균 52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컨벤션센터역은 106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내놓은 '19개역(驛)별 수송인원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최다 이용객 금남로 4가역=금남로 4가역은 지난해 광주지하철 19개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다. 금남로 4가역 이용객은 하루평균 5215명으로 전년보다 21

명 늘었다. 승객 수가 가장 적은 컨벤션센터역 1063명보다 4.90배. 금남로 4가역은 은행·쇼핑센터 등 이른바 업무지구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2위는 남광주역으로 하루평균 4313명이 이용했다. 남광주역은 시장상권이 활성화되고 전남대·조선대병원이 인접해 있다. 금남로 4가역과 남광주역은 2년째 1·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3위를 차지한 상무역 이용객 수는 3908명이지만 지난해보다 이용객 수가 7명 감소했다. 수완지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분산 효과와 소비 위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태역이다. 14위를

차지한 소태역은 1900명→1934명으로 증가했다. 나주혁신도시와 동구 내남·용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역의 이용객 수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역과 송정리역은 이용객이 감소한 특징도 보였다. 공항역은 1193명(2013년)→1181명(지난해)으로 12명, 송정리역은 2660명→2560명으로 100명 줄었다. 반면 터미널과 가까운 농성역은 2637명→2784명으로 147명 늘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이 열차·비행기보다 고속버스에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 등 시국현안과 밀접한

하루 평균 4만9000여명 꼴

금남로 4가역 이용객 최다

驛도=지하철 이용객 수 변화는 시국 현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양동시장역과 남광주역이 대표적이다. 양동시장역은 2445명→2398명, 남광주역은 4326명→4313명으로 각각 47명·13명 감소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으로 분석된다.

문화전당역도 주목할만하다. 문화전당역은 총정로 상권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역인데, 2930명→2879명으로 51명 줄었다. 반면 기획전시회가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가까운 컨벤션센터역 이용객 수는 1048명→1063명으로 15명 늘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2 달뜨기 15:12
해질녘 18:52 달지기 03:52

촉촉해지는 꽃잎

오전 늦게 서해안 일부지역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8/18	보성	5/15
목포	9/17	순천	9/16
여수	11/15	영광	8/19
나주	7/18	진도	9/17
완도	9/16	전주	9/18
구례	5/17	군산	7/16
강진	8/16	남원	7/18
해남	9/17	홍산도	9/15
장성	6/18		



비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남동~남	남서~남	남동~남	남서~남
서해	0.5~1.0	0.5~1.5	0.5~1.5	0.5~1.5
남부	1.0~2.0	1.0~2.0	1.0~2.0	1.0~2.0
남해	0.5~1.5	0.5~1.5	0.5~1.5	0.5~1.5
서부	1.0~2.0	1.0~2.0	1.0~2.0	1.0~2.0

생활지수

수면	70
운동	60
빨래	3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2:02	04:51
여수	23:17	17:32
	07:04	00:36
	19:24	13:16

주간 날씨

4/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	☁	☁	☁	☁	☁	☁
13/21	11/20	14/18	12/18	11/18	8/17	7/16

광주·전남 오늘 밤부터 10mm 봄비

3월의 마지막날 광주와 전남엔 마른 땅을 촉촉이 적셔줄 봄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1일 광주·전남 지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 늦게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엔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30일 예보했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1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19도로 남해상에선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5~10mm.

이번 비는 4월1일 새벽부터 점차 그칠 것이며, 이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도~14도, 낮 최고기온은 16도~21도로 봄비가 지나간 뒤부터 평년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봄기운이 이어지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국가인권위, 광주인권교육센터 오늘 개소

초청 특강·포스터 전시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31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썬아모레퍼시픽 건물 5층)에서 광주인권교육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불편하면 따져봐'의 저자 최훈(강원대 교양학부)교수 초

청 특강과 인권포스터 전시 등도 이날 개소식에 맞춰 진행했다.

광주사무소는 향후 인권위가 주관하는 각종 인권연수과정 및 인권 특강 등을 진행하는 한편, 서울과 충주교육센터에서 진행하던 인권교육과정 중 아동·이주·장애·정신장애 등 4개 영역의 인권강사 양성 과정도 시행하게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울산지점 364-7557